

무안공항 면세점 입찰 “제멋대로”

한국공항공사 공정성·객관성 기준 부재 ‘특혜 의혹’
공항규모·운항편수·이용객 무시 단순 매출액 기준
지방중소기업 육성·고용 창출 정부정책 정면 배치

무안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공개경쟁입찰이 공항 규모와 운항편수, 이용객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매출액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중견기업이나 인천공항 등 규모가 큰 공항에 입점한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준으로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와 면세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무안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역 업체 국민산업과 인천지역 업체 시티플러스를 대상으로 평

가를 한 결과 매출액에서 앞선 시티플러스가 1순위로 선정됐다.

문제는 평가항목 가운데 운영경험 분야의 매출액 평가를 공항의 규모나 운항편수, 이용객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최근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금액으로 평가한 부분이다.

국내 영업 면세점 (중소·중견)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을 기준금액으로 200%이상일 때 8점, 기준금액 60% 미만일 때 0점으로 해 규모가 큰 공항에 입점한 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입찰의 원칙인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가 현저하게 훼손된 평가방식으로 이뤄

졌다는 게 면세업계의 여론이다. 매출액 평가기간 (2016년1월-2018년12월) 동안 운항 편수와 이용객 현황을 한국공항공사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인천공항이 107만1천437편수에 이용객은 1억8천634만8천925명인데 비해 무안공항은 5천195편수에 67만8천49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은 무안공항에 비해 운항편수에서 206배나 많고 이용객 수는 27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저하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배제한 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편파적인 평가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적어도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운항편수와 이용객 수를 고려한 가중치를 두는 평가를 해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을 구분 없이 함께 입찰 평가를 하는 부분도 공정성에서 어긋나며,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하려는 정부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무안공항 면세점 입찰을 무효화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재입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관계자는 “인천업체가 선정된 이유는 지역업체와 최근 3년간 매출액에서 월등히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며 “한국공항공사 규정상 면세점 입찰에서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1순위 업체로 선정된 시티플러스의 최대주주는 일본 사후면세점 운영업체 (JTC)의 자회사 K-BOX의 70% 지분기업이다. 지난해 불법 면세품 판매로 관세청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았으며, 2018년에는 김포공항에서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바 있다.

/임제만 기자

1분기 휴면예금 399억원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진흥원)은 올해 1분기 휴면예금 9만4천건, 총 399억원을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줬다고 2일 밝혔다. 휴면예금 지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2% 늘었다.

은행 예금은 5-10년, 수표는 5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시장 영세상인이나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한다.

휴면예금이 있는 이는 진흥원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예금을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앱으로 찾을 수 있는 휴면예금도 최대 50만원이었지만 4월부터는 최대 1천만원까지 늘어났다. 서비스 이용도 24시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송중옥 광주은행장이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 영업점에 설치된 상담·대출 전담창구를 방문,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장, 소상공인 금융지원 ‘잔결음’

영업점 릴레이 방문, 상담·대출 점검

송중옥 광주은행장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이 신속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일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피해를 보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

해 송 은행장이 전 영업점에 설치된 상담·대출 전담창구를 릴레이 방문하고 있다.

송 은행장은 이날 목포와 영광에 이어 3일에는 여수·순천지역 영업점들을 잇달아 방문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기의 금융상담과 지원이 이뤄지는지를 점

검한다. 또한 영업점에 방문한 고객으로부터 금융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광주은행은 전담창구에서 보증 상담, 서류접수, 현장 방문과 보증약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금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에 직원 12명을 파견했다.

평소 지역기업과의 상생과 지역민과의 동행, 현장중심경영의 실천을 강조해 온 송 은행장은 지난달 11일에는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에서 피해기업과의 상담 및 대출지원에 앞장선 바 있다.

송중옥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고, 지역에 담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면서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광주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신청 ‘폭주’

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집중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주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주로 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광주 소상공인 특별보증 신청건수는 모두 1만219건으로 금액은 4천800억원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말 현재 6조859억원의 지원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는 업종별로 도소매 (29%), 음식·숙박 (27%), 서비스업 (13%) 등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 (33%), 50대 (25%), 30대 (23%) 등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나이에 많았으며 60대는 13%, 20대는 6%였다.

5년 이상 업장을 운영한 경우가 38%였으며 3년 이하 (26%), 5년 이하 (16%), 1년 이하 (20%) 등으로 전체적인 매출 타격을 심각하게 했다.

신청 금액은 7천만원 이하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3천만원 이하 35%, 5천만원 이하 33%였다.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는 북구 26%, 광산구 25%, 서구 24%, 동구 13%, 남구 12%였다.

대출 신청 가운데 2천114건, 710억원이 실행됐다. 1천700건, 625억가량은 심사가 완료됐는데도 정책 자금 차입이 늦어져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7일 정책자금 차입금을 은행에 지급하면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신용보증재단은 전했다.

광주시와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담보·이자·보증료 등이 없는 이른바 ‘3무 (無)’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임철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장 취임

임철원 (59·사진) 신임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장이 지난 1일 취임과 함께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장흥 출신 임 원장은 전남고과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기술경영석사를 취득했다.

1985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개성지사장, 본사 구매실장과 갈등관리실장, 서광주지사장, 광주전남본부장을 역임하면서 본사와 현장에서 에너지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임 원장은 “앞으로 한전, 전남도, 광주시, 나주시 등 유관기관이나 입주기업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에너지밸리의 조



기 정착은 물론 나아가 광주·전남을 세계적인 에너지허브로 만드는 데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은 한전 본사가 입주한 나주시에 전기·에너지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전과 전력 관계사들이 출자해 2016년 설립됐다. 전기산업진흥회가 관리하던 출신인 여성구 원장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

/박은성 기자

건보, 올 상반기 신규 직원 458명 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반기 신규 직원 458명을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채용인원은 행정직 225명, 요양직 210명, 전산직 14명, 기술직 9명 등이다.

이 중 사회 형평적 채용으로 65명 (장애인 15명, 국가유공자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2일부터 16까지다. 서류심사, 필기, 면접시험을 거쳐 7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모집지역이 6개 지역본부에서 14개 지역으로 나뉘고, 근무 조건은 모집지역 5년 이상 근무 (이후 해당 지역 관할 지역본부 내 근무)로, 지원자는 본인의 생활권을 고려해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채용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한 에너지사용 캠페인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② 폭박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고 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 영상 촬영

방송/광고/취재/스포츠행사/문화행사/축제/산업현장/호텔펜션홍보/부동산광고/부동산물건촬영/전문택지분양/지적도측량/생산시설/양식장/선박특수촬영/아파트/교회/사찰/웨딩/이벤트/전시회/임야/농장/목장/골프장/체육시설/공공기관등

DRONETIME 드론타임 상담문의 : 드론타임 010-5681-8084

항공청 사용자업자등록, 항공청 기체등록, KB드론배상보험가입, 전조종자 면허취득
드론타임/제일에스지 409-05-15874 EM. pjmhjom@naver.com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일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카페 **rt GALLERY** **BOOK & ARTS CENTER** **HOTEL**

김넛과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